

제129호 2000. 9. 25

학 회 소 식

시론 1

대한정형외과 제44차 추계학술대회 및 정기총회 4

각종위원회 소식 13

전문의시험 13

회원동정 14

관련학회 소식 15

지회소식 15

학술집담회 16

학회홈페이지 소개 18

대한정형외과사이버학회 소식 19

출간소식 20

시론

적정 의료를 위한 피눈물 나는 전쟁과
대한정형외과학회 추계학술대회

김 정 만 (대한정형외과학회 이사장)

존경하고 사랑하는 대한정형외과학회 선배, 동료, 후배 회원 여러분, 우리 의료계가 겪고 있는 전대미문의 고통과 이를 극복 해보려는 우리 의료인들의 피를 말리는 전쟁에 대해 한 말씀 올리려 펜을 들었습니다. 이 글의 제목에 “적정 의료”를 위한 전쟁이라는 표제를 붙인 것은 우리가 비록 국민을 괴롭히는 행위가 포함된 투쟁을 벌이고는 있지만 이것이 우리의 이익 때문만이 아니라 우리의 업무 상대인 국민에게 적정 의료를 베풀기 위한 것임을 나타내기 위한 표현입니다.

우리가 어떤 봉사행위를 질 높게 받으려면 그만큼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상인들로부터 좋은 물건을 사려면 많은 돈을 지불해야 하며 군으로부터 안보를 보장받으려면 많은 세금을 내어 군비를 갖추고 계속 개선해야 합니다. 같은 이유로 국민이 건강과 생명을 확실히 보장받으려면 정부가 많은 자금을 써야 하며 국민들도 자신들의 건강과 생명을 중히 여겨야 하고 이것을 위해서는 싫더라도 금전적으로 지출을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 뿐 아니라 국민들은 의사를 사랑하고 존중해 주어야 합니다. 의료 행위야말로 금전이 들지 않고는 받을 수 없는 노동집약적 행위일 뿐 아니라 금전만 가지고는 받을 수 없는 무형의 정신적 요소가 아주 중요한 분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의사는 재물로도 충분한 보상을 받아야 하고 그에 덧붙여 존중과 존경까지도 받아야 옳게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것입니다.

건축가가 건물을 잘 지으려면 금전적 보상만 충분하면 그에 상응하는 건축이라는 행위를 기대할 수 있지만 의사가 의료 행위를 잘 하려면 아버지와 같은 온후한 사랑하는 마음으로 환자를 대해야만 올바르고 효과적인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의사는 비록 아버지는 아니지만 아버지 같은 마음을 가져야 하며 이를 정신과적 용어로 “아버지 대신(father substitute)”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물질적, 정신적 요소가 복합되어 있는 것이 의료 행위이며 그 행위 주체인 우리 의사가 그 두 가지를 모두 요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진 각 국에서는 우리 나라에서는 상상도 못하는 많은 비용을 의료에 쓰고 있고 그러면서도 의사를 존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나라 의사들은 점잖아서 당연한 사실인데도 그런 말을 입 밖으로 내는 것을 터부시하고 지내왔습니다. 그랬더니 정부가 이런 약점을 십분 이용, 자기들의 대 국민 선전 차원과 실적 수립 차원에서 저수가 의료보험 제도를 세웠고 그것도 모자라 해가 갈수록 수지를 악화시켰으며, 결국은 의료인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정부는 이에 그치지 않고 병원 운영을 하기 위해 탈출구를 찾으려는 의사들에게 그 원인 제공자가 자기들임을 잊고 의사들을 집단 이기주의로 몰아 세웠으며 몇 년에 걸쳐 그 강도를 높여 왔습니다. 작금의 의약분업 사태 이전에도 말입니다. 그 결과 국민들의 뇌리에 의사들은 악인들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심어 주었고 그것이 금번 의약분업 사태 해결에 “진정한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록 의약분업 사태가 아니더라도 점점 의욕을 잃어가고 있었는데 정부가 이번에는 의료인과 약사들의 말초를 자극하는 의약분업 법령을 만들고 그 시행을 막 시작했습니다.

원래 의사와 약사는 협조 관계를 갖도록 마련된 것이며 과거 역사상 의사가 업무를 덜기 위해 “약”을 전문으로 하는 분야가 필요하여 약학이라는 학문을 만들고 그 주무인들을 약사라고 부른 것입니다. 그들의 역할은 의료가 아니고 의료인을 약 분야에서 보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협조 관계만 필요할 뿐 대립 관계는 없어야 하며 그 때문에 선진 각 국에서는 우리 나라와 같은 의약분업 제도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가 의료 서비스가 아니라 의료비 절감 차원에서 정책 입안을 하다 보니 오늘날과 같이 의약간의 대립을 촉발시켰고 마치 자신들은 그 중간 입장에서 싸움을 말리는 것과 같이 행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약사들이 비록 싸움을 걸어와도 이에 대응치 않고 정부만 상대로 건의하고 투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도 정당한 행위를 하고 그에 걸맞는 보상을 받으면 되고 우리 의료인도 정당한 행위를 한 만큼 보상을 받으면 문제는 끝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시민 단체는 이러한 내용을 모르고 행동하고 있으며 일부 국민들도 이러한 기본이 거의 없다시피한데 그 원인은 정부가 공정한 보도를 못하게 하고 자신들의 주장만 무게를 주어 홍보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의료계 대표가 의약분업 사태 시작 때 내용을 깊이 따져보지도 않고 정부와 약사와 시민 단체들의 선의만 믿고 선뜻 도장을 찍어준 것이 발미가 되어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바와 같은 모욕과 고통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면 우리 나라가 일제에 강점 당할 때 조정이 합방문서에 서명했다해서 독립운동이 나쁜 행동이라고 매도당해야 합니까? 늦게라도 국민 대중이 깨닫고 해보지도 않은 싸움이지만 무기를 들고 항전하였고 결국은 독립을 얻지 않았습니까?

또 우리가 진료를 축소함으로써 정부에 항의하고 있지만 응급상황을 한번도 외면하지 않음으로서 의사들의 기본 덕목인 “생명 중시”는 실천해 오지 않았습니까?

일제에 항거하여 일제 괴수를 없앤 안중근의사는 독실한 가톨릭 신자였으며 분수를 아는 ‘양반’이었습니다. 그 분이 침략의 괴수를 없애기로 결심을 했을 때 하느님께서는 살인의 죄를, 교회에는 살인 때문에 신자로서의 권리 박탈을, 실정법으로는 정부 전복 획책과 살인죄를 썼었습니다. 비록 해방 후 오랜 세월 후 가톨릭 교회에서 복권을 시켰지만 그 당시 이등박문을 제거하기로 결심했을 때 자신에게 다가오는 어찌 보면 하느님의 영원한 벌까지 계산해야 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그것이 두려웠다면 영특한 그 분이 행동으로 옮기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 분은 해야만 되는 일이니까 한 것 뿐입니다. 그리고 그 분과 같은 생각을 가진 많은 애국지사들과 백성 덕분에 우리는 현재 독립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정부가 만일 공정하게 의료 현안을 보도하도록 허용하고 언론이나 시민 단체나 약사회나 보건 노조가 정상적 시각으로 보아주었다면 우리 의료계는 본업인 진료를 축소하는 항의성 행위를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큰 집회를 갖고 항의를 해도 모두 묵살 당했고 최고위층의 성명에서도 우리들의 정당한 요구를 “집단 이기주의”로 매도함으로써 의사들의 자존심마저 극도로 손상시켰고 환자에 대한 ‘정신적 치료 효과를 훼손시킴으로서’ 우리들의 ‘업무를 방해했기 때문에’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우리가 뭉쳤던 것입니다.

안중근의사가 살인이 나쁜 일인 줄 알면서도 이토를 없앴고 연합국이 파괴와 살상이 나쁜 일인 줄 알면서도 할 수 없이 추축국들에 대항하여 전쟁을 수행한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의료계도 진료 축소가 국민에게 부담이 되고 우리에게도 부담이 되는 줄 알면서도 할 수 없이 항의 차원에서 시행했던 것입니다.

회원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정책 입안자들이나 우리와 반대 입장에 있는 사람들을 깨닫게 하기 위한 정도로만 행동했지 국민을 외면한 적이 없습니다.

진료축소란 진료의 연기를 의미한 것이지 안 하겠다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말과 글로 표현을 극렬하게 했어도 응급실 문을 닫거나 분만실을 닫거나 중환자실을 닫거나 한 적이 없으며, 신문, 방송 보도와는 달리 내용적으로는 암환자의 투약은 계속했으며 응급 수술은 비록 전공의가 없어 무척 힘들지만 스텝들끼리 조를 짜고 간호사, 기사들의 협조를 얻어 모두 시행하려고 노력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록 일부 실수한 사람이 있었을지는 모르겠으나 우리들의 투쟁은 정당한 수순을 밟았고 그 목적도 행동도 온건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의사들이 보도와는 달리 인텔리겐치이고 선량하다는 증거이며 불의를 보고는 그냥 지나지 못하는 뜨거운 정열도 가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기서 이런 때에 우리 학회는 어떤 일을 해야 할까요? 항의하는 마당이니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설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그렇게 할 순 없습니다.

전쟁 상황일수록 더 조직을 강화하여 장기 투쟁에 걸 맞는 일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한국전 당시 우리는 피난 가서도 학교는 쉬지 않았습니다. 왜냐구요? 끊임없는 교육이야말로 전쟁후의 우리 앞날을 보장해 주는 유일한 길이니깐요. 상인들도 장사는 계속 했습니다. 왜냐구요? 그래야 필요한 물건이 시중에 돌아 나뉘 가질 수 있고 생존이 가능하니까요.

전쟁 중 전투가 한 시간쯤 잠시 소강 상태일 때 병사들은 무엇을 해야 합니까? 건빵이라도 먹어서 생명을 유지하고 잠깐 눈을 붙여 피로를 푸는 등 생명 유지의 기본 작업을 할 뿐 아니라 총기를 다시 손질하고 그래도 시간이 남으면 사랑하는 사람에게 편지를 씁니다. 정상적인 병사의 하는 일은 이와 같습니다. 전쟁 노이로제에 걸린 병사는 어떨까요? 정면으로 적군을 노려보고 어떻게 전투해야 할까, 무엇을 준비할까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왕좌왕합니다. 소리만 질러대고 눈은 겁에 질려 있습니다.

의사는 개원의든, 봉직의든, 전공의든, 교수이든, 모두 의학을 전공하는 사람들이고 그것으로 국민에게 봉사하고 그 봉사 대가로 자신들의 삶을 꾸려갑니다.

우리가 비록 정부의 정책과 반대자들의 무지와 이기주의에 대항하여 항의 차원에서 진료 축소를 한 일이 있지만(전체 의료계를 따져보면 폐업한 일이 없습니다) 우리의 무기인 “의학 기술”은 끊임없이 연마해야 합니다. 교수들의 3대 업무는 진료, 교육, 연구입니다. 개원의들도 교육의 대상이 전공의가 아니고 국민일 뿐 교수와 똑같습니다. 연구와 교육은 우리 의료계 모두의 공동 업무입니다. 또 우리는 서로 서로 모두 재교육을 시키고 또 받아야 합니다. 학술대회는 바로 이 재교육장이기도 합니다.

진료 축소는 항거의 수단이 될 수 있지만 연구와 교육은 항거의 수단이 되지 못하고 우리의 고유 업무일 뿐입니다.

이 의약분업 사태가 한 두 달 안에 끝난다고 보십니까? 문제가 산적해 있고, 사안이 시간이 많이 걸리는 법개정과 관계되어 있으며, 우리와 반대 의견을 가진 힘 센 집단들이 있고, 주무 부서인 행정부는 마지못해 협상에 임하고 있으며, 그 동안 정부와 언론의 호도 때문에 대다수의 국민이 우리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데도 말입니까?

우리는 우리 입장을 올바르게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시간을 벌어야 합니다. 홍보야 말로 우리의 다음 전술이 되어야 합니다.

집단 항거는 필요한 일이지만 문제가 급히 해결될 전망은 밝지 않습니다. 만일 빨리 끝난다면 그것은 의료계가 많은 손해를 본다는 것을 뜻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회원 여러분, 우리는 냉정한 사고력을 가지고 현실을 직시하고 ‘장기 투쟁의 준비를 차리자고’ 제안하는 바입니다. 우리는 투쟁을 계속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을 학회를 하지 않으면 정부가 잘못을 깨닫습니까? 손해는 학문을 기피한 우리 회원들에게만 돌아옵니다. 우리가 지금 투쟁을 하고 있는 이 시점에도 선진국에서는 연구가 계속되고 논문이 쏟아져 나옵니다. 우리는 우리 경험상 좋은 논문은 가장 바쁘고 힘들 때 나옴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상 학회의 실무 책임을 맡고 있을 뿐이므로 대다수 회원들이 원한다면 의견에 따라 학회를 연기하거나 포기해도 개인적으로는 아무런 해도 입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도 의사이고 교수이고 학회 회원이므로 그런 자격으로 여러 회원님들께 호소하는 바입니다. 사실 회장님을 비롯한 집행부는 정형내과, 대체의학, 외국 유명인사 초청, 각종 워크샵, 비디오 세션 등 많은 것을 준비했었는데 대세에 밀려 수, 목, 금, 토 스케줄을 그 절반인 목, 금으로 줄이고 전공의의 입장을 감안하여 자유발표를 없애고 스텝들만이 할 수 있는 심포지움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러나 더 줄일 수는 없고 각 종 여건상 연기할 수도 없습니다. 또 총회를 개최해야 차기 집행부로 업무 이양이 가능한데 학술대회 없이 총회만을 한 대서야 몇 명이나 참석하겠습니까? 정족수가 모자라는데 총회 성립이 되겠습니까? 저희 집행부는 스케줄을 비록 이틀로 줄이지만 그 내용을 깔끔하고 생산적으로 만들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러므로 한 분도 빠지지 말고 모두 참석하시어 학문도 나눠 가지시고 경험도 공유하시며 의약분업 사태도 토론해 보시기를 호소하는 바입니다.

넓으신 아량으로 이 글을 읽으시고 긍정적으로 평가해 주시면 일생에 한번 밖에 할 수 없는 이사장직을 걸고 평생 은혜로 여기고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한정형외과학회 제 44차 추계학술대회 및 제45차 정기총회

1. 대한정형외과학회 제 44차 추계학술대회 및 제 45차 정기총회가 현 시국으로 아래와 같이 19(목)~20(금), 2일로 축소 개최되며 연수강좌는 Symposium으로 대체되었습니다.

주일시 : 2000년 10월 19(목)~20일(금)

주장소 : 서울힐튼호텔 컨벤션센터

2. 학술대회 등록은 정회원 55,000원이며 전공의의 등록비는 면제입니다.

3. 제 44차 추계학술대회 및 제 45차 정기총회 프로그램은 아래와 같습니다.

각종위원회 소식

1. 편집위원회

1) 논문 심사가 길어질 가능성이 많으므로 논문 제출 시 유의하여 서두르는 사례가 없도록 하시고, 특히 전문의 시험과 관련하여 출판이 늦어져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2) 투고규정에 맞지 않는 논문은 접수단계에서 거절할 것입니다.

흔한 거절 사유로는 초록이 너무 길거나 형식화되지 않은 것, double space로 인쇄되지 않은 것, 본문중에 저자의 소속이 나타나 있는 것, reference 기재 잘못 혹은 인용 방법 오류등이 있는 것등. 앞으로는 사진이 선명하지 못하거나 총 면수가 10면(증례보고인 경우 5면) 이상인 경우에도 줄여서 다시 제출할 것을 요청할 것입니다.

3) 해외 잡지에 논문을 기고할 경우 논문의 reference에 '대한정형외과학회지'를 인용하여 학회지 인용 빈도를 증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인용은 학회지를 SCI 혹은 MEDLINE에 등재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4) 좋은 논문에 대하여는 학회에서 해외 권위자라고 생각되는 분에게 논문 별책을 발송할 예정입니다. 저자들이 본인의 논문이 발송되기를 원하시면 학회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논문은 접수되는 대로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화 되어 있습니다. 회원님들께서는 기일에 상관없이 원고 및 사진 각 2부씩을 수시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논문 제출시에는 꼭 학회 홈페이지 또는 학회지에 게재된 학회지 투고규정을 숙독하시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학회지 투고란을 만들어 학회지의 발전에 참조할 예정입니다. 대한정형외과학회지 발행에 대한 건의 사항이나 문제점등이 있으시면 학회 e-mail:ortho@ortho.to 를 통하여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의 시험

1. 2001년도 전문의 자격 1차시험(주, 객관식) 출제계획서 공표

분 야		문제수	
		객관식	주관식
일 반	고관절	10	2
	슬관절	10	2
	척추	10	2
	수부·상지	15	3
	감염·대사·족부	10	2
외	상	20	4
소	아	10	2
기초·재활		10	2
종	양	5	1
총	계	100	20

※ 문제수는 10% 범위내에서 조정될 수 있음.

2. 전문의 시험 필수 논문 점수 개정 : 2000년 8월 29일 제 3차 이사회 결의 사항

<현행> : 2001년 전문의 시험 응시생에게 적용

논문 점수 2점 그중 1점은 대한정형외과학회지를 포함한 주논문 인정 학회지에 반드시 게재되어야 함.

1) 주논문(1점)은 대한정형외과학회지, 고관절, 슬관절, 골절, 스포츠의학, 척추외과, 골관절종양, 족부, 수부외과, 견·주관절, 미세수술, 관절경학회지

2) 부논문으로 대한의사협회에 등록된 학회가 발행하는 학술지, 대학에서 발행하는 잡지, 해외학술지 인정.

<개정> : 2002년 전문의 시험 응시생부터 적용

논문 점수 3점 그중 2점은 반드시 주논문 인정 학회지에 게재되어야 함.

1) 대한정형외과학회지에 원저로 실리면 3점으로 인정

(전공의가 1명이면 3점 / 2~3명까지 1.5점 인정)

2) 주논문 인정 분과학회지(고관절, 슬관절, 골절, 스포츠의학, 척추외과, 골관절종양, 족부, 수부외과, 견·주관절, 미세수술, 관절경학회지)에 게재는 2점 인정

(전공의가 1명이면 2점 / 2~3명까지 1점 인정)

3) 부논문 인정 학회지(대한의사협회에 등록된 학회가 발행하는 학술지, 대학에서 발행하는 잡지, 해외학술지)는 1점

4) Case report는 부논문으로만 인정되며 대한정형외과학회지 또는 관련학회지 모두 1점으로 인정하고 그 총 점수는 2점 이내로 한다.

회원동정

1.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1) 이상완(대전성심병원) 회원 지난 7월 19일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대전지역 심사평가위원장으로 취임

2) 이석현(고려의대)은 지난 9월 1일자로 고대구로병원의 제 9대 원장으로 취임. 이 신임 원장의 의료계의 현 안에도 불구하고 고대구로병원이 내실을 기하고 계속 발전할 수 있도록 열심히 임무에 임하겠다고 취임소감을 밝히었다.

3) 조우신 교수 9월 1일자로 울산의대서울중앙병원 정형외과장으로 취임

4) 송광순 교수 9월 1일자로 계명의대동산의료원 정형외과장으로 취임

2. 개원을 축하드립니다.

1) 신재기회원 : 9월 2일 서울정형외과개원(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877-1, Tel 031-269-7585)

관련학회소식

1. 대한골절학회 제 26차 추계학술대회에 관하여

최근의 의료상황에 비추어 2000년 10월 22일(일) 개최예정이던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하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어 학회를 무기한 연기합니다. 추후 개최여부 등에 관한 공지를 다시 하겠습니다.

2. 2000년 대한골관절종양학회 추계학술대회 및 연수강좌

일시 : 추계학술대회 - 2000년 11월 11일(토) 오후 1시~오후 6시

연수강좌 - 2000년 11월 12일(일) 오전 8시~오후 6시 30분

장소 : 추계학술대회 - 서울 신라호텔

연수강좌 - 서울대병원 소아병원 임상 제1강의실

연락처 : (우) 110-744 서울시 종로구 연건동 28 서울대병원 정형외과 이상훈, 김한수

전화 : 02-760-2364, 2362, 팩스 : 02-764-2718

E-mail : sanghoon@plaza.snu.ac.kr

3. 대한소아정형외과학회 연수강좌 및 학술대회 개최 공지

▶연수강좌개최 취소 공지

현 의료사태가 좀처럼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아 연수강좌의 준비에 문제점이 많을 것으로 판단되어 집행부와 평의원님들의 의견을 취합한 결과 금년 11월 10, 11일 예정되어 있던 대한소아정형외과학회 연수강좌의 개최를 취소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내년도에 좀 더 내실있는 연수강좌를 기획하겠습니다. 반면, 대한소아정형외과학회 추계학술대회는 외국인 방문관계로 예정되려 개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학술대회 개최

금번 학술대회에서는 대한소아정형외과학회 회원의 자유 연제 및 증례 토의와 더불어 미국의 G. Dean MacEwen교수를 단장으로 하는 3명의 젊은 traveling fellow들의 연제 발표가 있습니다.

일시 : 2000년 10월 27일(금) 오후 1시 30분~6시 30분(총회 : 오후 1시~1시 30분)

장소 : 서울대학교병원 임상 제 2강의실(어린이병원내)

4. 대한고관절학회 추계학술대회 및 연수강좌 변경

연수강좌는 11월 17일로 추계학술대회는 12월 2일로 변경되었습니다.

장소는 추후 통보하겠습니다.

지회소식

1. 대한정형외과학회 대전충청지회 추계학술대회 개최안내

2000년도 대한 정형외과학회 대전충청지회 추계학술대회를 10월 6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무기한 연기되었음을 알려 드리오며 회원 여러분의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학술집담회

1. The 10th International Symposium of Association Research Circulation Osseous(ARCO)

일시 : 2000년 10월 4~7일

장소 : The Engineers Club, Inner Harbor, Baltimore, MD, U.S.A.

연락처 : Lynne C. Jones, Ph.D.

5601 Loch Raven Boulevard, Suite 201, Baltimore, MD 21239, U.S.A.

Tel : 1-410-532-5906, Fax : 1-410-532-5908, E-mail : lcjones@jhmi.edu

국내연락처 : 경남 진주시 칠암동 90 경상대학교병원 정형외과 구경희

Tel : 0592-750-8107, Fax : 0591-753-4789, E-mail : khkoo@nongae.gsnu.ac.kr

2. 55th Meeting of American Society for Surgery of the Hand

일시 : 2000년 10월 5~7일

장소 : Seattle, WA, U.S.A.

6300 North River Rd, Suite 600, Rosemont, IL. 60018-4256, U.S.A.

3. Australian Orthopaedic Association 60th Annual Scientific Meeting Hobart

일시 : 2000년 10월 8~13일

장소 : Hotel Grand Chancellor Hobart Tasmania

Conference Secretariat Penny Archer or Ben Thiessen Conference Design Pty Ltd.

PO Box 342, Sandy Bay, Tasmania 7006, Australia Tel : 03-6224-3773, Fax : 03-6224-3774

E-mail : mail@cdesign.com.au, URL : www.cdesign.com.au/ortho2000

4. 35th Annual Meeting of Scoliosis Research Society

일시 : 2000년 10월 18~21일

장소 : Cairns, Australia

연락처 : 6300 N, River Rd Ste 727, Rosemont, IL 60018-4226. U.S.A.

5. 20th Annual Asean Orthopedic Association

일시 : 2000년 10월 20~23일

장소 : Pattaya, Thailand

연락처 : Prof. Chaithavat Ngarmukos, M.D.

C/O R.C.O.S.T and TOA

4th Floor, Royal Golden Jubilee Bldg. 2 Soi Soonvijai, New Petchburi Rd,

Bangkapi, Bangkok, 10320, Thailand

6. 8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Tissue Banking

일시 : 2000년 10월 22~24일

장소 : Bali, Indonesia

연락처 : Department of Orthopaedic Surgery

Dr. Soetomo General Hospital Medical school-Airlangga University

Jl. Mayjend. Prof. Dr. Moestopo 6-8, Surabaya, Indonesia

Tel /Fax +62-31-5038912, E-mail : ortopedi@rad.net.id

국내연락처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지동 93번지 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 정형외과 강용구

Tel : 0331-249-7184, Fax : 0331-254-8228, E-mail : kyk77@bora.dacom.co.kr

초록마감 : 7월 1일

등록마감 : 10월 1일

7. 5th Turkish Sports Traumatology, Arthroscopy and Knee Surgery Congress

일 시 : 2000년 10월 24~27일

연락처 : " Omer Taser, M.D. Congress president

Istanbul Tip Fak "ultesi P.K. 65, 34390 Capa/Istanbul, Turkey

Fax : +90-212-296-92-66

8. 제 28차 Cervical Spine Research Society(미국경추학회)

일 시 : 2000년 11월 30일~12월 2일

장 소 : Charleston, South Carolina, U.S.A.

연락처 : 031-820-3066, 3594, 3013 (장한, 박종범) 011-897-6336

경추외과 분야에 연관된 다양한 논문과 연수강좌는 평소 이 분야에 관심이 있는 국내 척추의사들에게는 유익한 기회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참가하길 원하시는 분은 가톨릭의대 의정부성모병원 정형외과로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 Arthroscopy and Reconstructive Surgery 2001

일 시 : 2001년 1월 13~20일

장 소 : Sun Valley Resort, Sun Valley, Idaho

10. 제 13차 WPOA Congress

일 시 : 2001년 4월 1~6일

연락처 : Adalaide, Australia, Secretariat, SAPMEA Conventions, 68 Greenhill RD, Wayville 5034, South Australia, Australia

11. 8th International Congress on Surgery of the Shoulder(8th ICSS)

일 시 : 2001년 4월 23~26일

장 소 : Cape town, South Africa

학회연락처 : Tel : +27(21)762-8600,

Fax : +27(21) 762-8606

E-mail : icss2001@globalconf.co.za

우편주소 : PO Box 44503, Claremont, 7735, South Africa

사서함주소 : 4 Tennant Road, Kenilworth, 7700, Cape Town, South Africa

웹사이트 : <http://www.globalconf.co.za/icss2001>

초록마감 : 2000년 8월 25일

팩스접수는 받지 않고 웹사이트(<http://www.globalconf.co.za/icss2001>)를 통해서만 접수.

원본은 학회연락처 사서함 주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12. Intercollegiate X-ray Conference(매월 둘째 목요일, 16:30~) : 1, 4, 8, 10월 없음.

2000년 11월은 병원사정상 취소되었습니다.

12월 : 한일병원

2001년 2월 : 울산의대 3월 : 원자력병원 5월 : 서울의대

6월 : 인제의대 7월 : 국립의료원 9월 : 고대구로병원

11월 : 삼성의료원 12월 : 경희의대

교실 사정상 부득이 변경이 필요하시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처 : Tel / 02-760-3212, 2368, E-mail / leemc@medicine.snu.ac.kr

학회 홈페이지 소개

(www.koreanorthopaedics.org 또는 www.koa.or.kr)

■상기 두 개의 주소중 어느쪽을 입력하여도 학회 홈페이지에 연결하실 수 있습니다.

1. 학회지 찾아보기 안내 :

정형외과학회지를 창간호부터 모두 찾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찾아 보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홈페이지 쥔 학회지로 들어 가면 그림과 같이 논문을 검색하는 창이 열리며 상단에 학회지 연도별 보기라는 그래픽이 나타나는데 이것을 클릭하면 학회지를 연도별로 선택하여 찾아 볼 수 있는 창이 열리게 됩니다.

이 창에서 원하는 학회지의 연도와 권수를 선택하시고 search를 누르면 해당 학회지의 목차가 나타나며, 그 중에서 보고 싶은 논문의 제목을 클릭하면 우선 초록이 나타나고 초록 내용중에 있는 PDF 를 클릭하면 논문 전문이 뜨게 됩니다.

전문을 모두 다운받아 열어 보기 위하여는 acrobat reader 4.0이라는 software가 필요하며, 파일이 열리는 데는 인터넷의 속도에 따라 다소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www.koreanorthopaedics.org / www.koa.or.kr

2. 현재의 의료사태를 보는 각계의 의견을 모아 공지사항에 올리고 있습니다.

의료사태에 대해 본인이 적은 글이거나 web surfing 중에 읽은 좋은 글이 있으면 학회홈페이지의 게시판에 올려주시거나 webmaster에게 메일 주십시오. 글의 내용이 좋으면 전 회원이 읽을 수 있도록 공지사항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3. 학회의 공지사항을 메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학회의 공지사항을 실시간에 받아 볼 수 있고, 필요한 사항을 저장하여 둘 수도 있으므로 사용이 편리할 것입니다. 아직 회원등록을 안하신 회원께서는 홈페이지에서 회원 ID와 password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

난 1개월간 400명의 회원이 더 등록하여 현재 930명의 ID와 password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만일 회원등록이 안되시는 회원께서는 database에 있는 주민등록번호가 잘못된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학회사무실(02-780-2765-6 ortho@ortho.to)로 정확한 주민등록번호를 알려 주시면 수정하여 드리겠습니다.

4. 홈페이지에 대한 의견을 접수합니다.

홈페이지의 활성화와 내실화를 위한 의견이 있으신 회원은 주저하지 마시고 전산정보위원회로 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회원 모두의 관심이 학회 홈페이지를 활성화하는 지름길입니다. 또한 전산위원회의 회의록은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으니 참고로 하여 주십시오.

대한정형외과사이버학회 소식

(<http://www.koc.or.kr>)

1. 학술대회 운영 위원회 소식 (글 : 위원장 황득수)

- 제 2회 대한정형외과 사이버 학술대회 개최 안내-

금년 대한정형외과학회 추계학술대회가 자유연제 없이 심포지움 형식으로 진행 함에 따라 이번 추계학회에 발표를 준비 하셨던 연제를 사이버상에서 구연 발표 하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추계학회에 내었던 연제를 사이버상에서 발표 하실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대한정형외과 사이버학회 홈페이지(<http://www.koc.or.kr>)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술대회기간 : 2000년 12월 11일(월) 부터 16일(토)

신청 접수 및 초록 마감 : 2000년 11월 10일 까지

? 기타 문의 사항이 있으신분은 아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학술대회 운영위원회 : 황 득 수(dswhang@cuvic.cnu.ac.kr) 042-220-7350

2. 증례토의실 운영 위원회 소식 (글 : 위원장 김응하)

증례토의실이 subspeciality 분야별로 나누어 질의 와 토론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새 단장을 하였습니다. 증례토의실 활성화를 위해 증례예시 뿐만 아니라 실제치료에서 어려운 점에 대한 사전에 의견을 듣는 장소로도 활용하려합니다. 이를 위해 각 세부분야별로 질의응답 및 토론을 해 주실 선생님들을 위촉하였습니다. 증례에 대한 심도있는 토론과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로 증례토의실이 활성화 되기를 기대합니다.

? 기타 문의 사항이 있으신 분은 아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증례토의실운영위원회 : 김 응 하(eungha@unitel.co.kr)

3. 사이버 월례집담회가 개최되고 있습니다.

2000년 8월 사이버 월례집담회는 경희의대 연제가 전시 중 입니다.

주소는 http://www.koc.or.kr/med_Room/seminar.htm 입니다.

사이버 월례집담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병원을 공개 모집 합니다. 많은 응모 와 참여를 부탁 드립니다.

4. “오늘의 증례” 사이트를 소개 합니다.

치료방법 결정이 어려운 증례를 무기명으로 올려서 다른 선생님의 의견을 들어 보실 수 있습니다. 간단한 병력 과 이학적 소견 그리고 사진만 보내 주시면 됩니다. 주소는 <http://www.koc.or.kr/cyber/> 입니다. 귀 병원의 증례도 올리시려면 증례등록 사이트(<http://www.koc.or.kr/cyber/login.html>)에 가셔서 3가지 방법 중에 한가지를 택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활용을 바랍니다.

출간소식

1. 정형외과 개정판(제5판) 출간

정형외과학(교과서)이 제4판 이후 6년만에 전면개정과 150페이지 증면으로 개정 발간되었습니다. 구입을 원하는 회원께서는 학회사무실(Tel : 02-780-2765) 또는 최신의학사(Tel : 02-3272-7092)로 연락주시면 발송하여 드리겠습니다. 대량 구입을 하시는 교실에는 본학회 교과서편찬위원회에서 20권당 1권을 기증하기로 하였습니다. 회원여러분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가격 : 40,000원

신청후 송금 계좌 : 한빛은행 160-05-000712,

예금주 : 대한정형외과학회

2. 정형외과용어집 개정판 공지

1) 정형외과용어집이 10여년만에 개정판으로 발간되었습니다. 1집은 230여 페이지의 분량이었으나 개정판은 1,000여 페이지의 영·한으로 정형외과학, 의학용어집, 정형외과용어집의 용어를 기본으로 하였습니다. 구입을 원하시는 회원께서는 아래 계좌로 입금후 학회사무실(Tel : 02-780-2765~6)로 연락주시면 발송하여 드리겠습니다.

가격 : 25,000원

한빛은행 : 160-05-000712,

예금주 : 대한정형외과학회

3. 당뇨병성 족부질환 발간

‘당뇨병성 족부질환’이란 제하에 을지외과대학교 족부정형외과 이경태 회원 등이 이 분야 전문가 16인과 공동 집필한 이 책은 크게 ▶ 당뇨병성 족부 질환의 기본학, 임상양태, 치료방법, 예방 등 4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가격 : 35,000원

구입문의 : 최신의학사 (Tel : 02-3272-7092)